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사기범 등 2만7천명 검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직거래 사기·메신저 피싱 가장 많아...억대 피해 검거된 피의자 절반 20대...10명 중 7명은 무직

경찰이 올해 온라인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사범 2만7000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72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전체의 절반(48.49%)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무직 또

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10명 중 7명(71.75%) 수준이었다.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3682명(구속 1019명)으로 직거래 사기가 10건 중 4건(40.22%)을 차지했다. 뒤이어 투자 빚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트위터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745명으로부터 2

억7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도박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전제품 할인판매’ 글을 게시해 연락 온 피해자 639명으로부터 5억1915만원 편취한 피의자 1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현금 결제 시 추가 10% 할인을 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최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월급 보장 투자’ 광고글을 SNS·메신저상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은 “특히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초기에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구속 220명)으로 메신저 피싱 범죄가 54.8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집계됐다. 메신저 피싱은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동용 계정을 친구 등록하게 한 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수법이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3-6월 대학 교수를 사칭해 접근한 후 위조된 미화 송금증을 보여 주며 1~2일 내로 갚아줄 테니 해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71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 송환된 후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 원격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46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9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평소 경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 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 예방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털내 내 정보찾기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연탄 전달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정릉골에서 열린 ‘자비실천,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행사에서 봉사자들이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사건브로커 연루 검찰 수사관 또 나올까...기밀 유출 관여 의혹

7급 수사관 비위 의혹 제기돼 수사망 올라

브로커의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속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7급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B씨는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성씨에게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1301만 원을 받아 행간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수사받았다. 이 중 목포지청 수사관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A·B씨가 탁씨의 압수영장 관련 수사 기밀을 성씨에게 알려줄 때 7급 수사관(당시 광주지검 재직)이 개입·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A·B씨가 수사 기밀을 전해 듣고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찰은 7급 수사관의 혐의 유무를 들여다본 뒤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송음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행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성씨를 지난 8월 구속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 중 3명(검찰 수사관 A씨와 전직 서울청 경무관·전남청 경감)이 구속됐다. 현직 치안정감·치안감·경정·경감을 비롯해 전직 경찰 고위직 일부도 성씨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이 중 광주청 경감은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성씨에게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경감에게 성씨를 소개해준 광주청 경정의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용품 판매점을 압수수색하고, 추가 비위 의혹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성씨가 자치 단체장 또는 공무원들과 결탁해 대가성으로 관공사를 수수하고, 정지권에도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희면기자

장성 야산서 지역 언론사 임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 임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가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장성군 한 야산 인근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지역 언론사 임원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A씨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가족들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사흘 간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인 규명을 나선다. 장성=김수권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